

# 신종플루의 위협의 과장



외국어학부  
영어학과  
정현희

# 신종플루란 무엇인가?

-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 생긴 새로운 바이러스 독감
- 멕시코에서부터 시작하게 된 바이러스 독감
- 전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공포를 줬던 전염병

# 신종플루에 대한 WHO의 대책?

- 제약회사와 함께 '신종플루 대유행'을 실시
  - 사람들에게 백신접종을 실시하게 함
  - 사람들에게 '타미플루'라는 화학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게 함
  - 외국으로 백신을 팔기 시작함

WHO의

‘신종플루 대유행’은

사람들에게

오히려 더 겁을 줄뿐

WHO와 제약회사는

돈에 대한 이익만 생각을 했다?

# 사례 1

나라	재고물량 신청량	결과
프랑스	1명에 2회씩 9천 400만 구입	5000만개 주문 취소
스위스	8천400만 구입	450만회분을 돌려주기로 결정
독일	5천만 회분	5천만 회분을 절반으로 줄이기로 결정

백신을 구입  
한 외국에  
서는, 백신  
접종률이  
생각보다  
낮아서 재  
고물량이  
쌓이게 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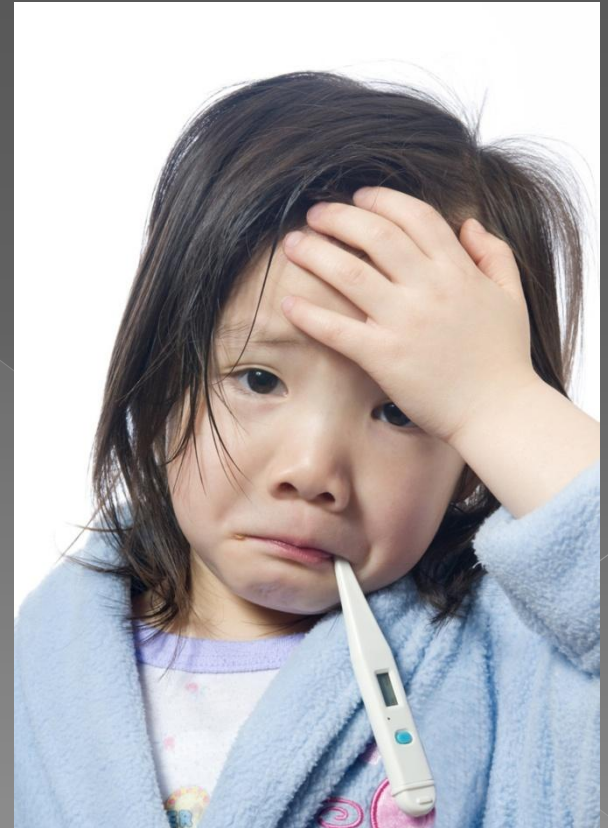
## 사례 2

년/주	사망자수
2009년/37주	1
2009년/38주	3
2009년/39주	3
2009년/40주	0
2009년/41주	3
2009년/42주	5
2009년/43주	7
2009년/44주	24
2009년/45주	25
2009년/46주	25
2009년/47주	16

작년에 한 국회  
의원이 전 세  
계적으로 신  
종플루로 사  
망할 사람들  
은 약 20,000  
명이 될 것이  
라고 하였지  
만 실제로는  
300명도 되지  
않았다.

# 사례 3

- 신종플루가 일반적인 독감보다 더 약하고 취사율이 낮다



## 사례 4

- WHO는 타미플루를 만든 제약회사와 그 외의 제약회사에게 돈을 지불하였다
- WHO는 WHO의 위원회 위원 중 신종플루를 결정한 몇몇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하였다.



# 사례 5

- 사람들에게 타미플루라는 화학 항바이러스를 투여하고 백신접종을 실시함으로써 부작용과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게 하였다.



WHO와 제약회사는, 신종플루라는 병이 생기고, 점점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에 백신접종을 시키고 항바이러스를 투여하자는 결정과 함께 이것으로 자기 자신들이 이익을 벌려고 생각을 했다.





경청해주셔서  
감사합니다